

쇄신 –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Jane DeRose-Bamman, OFS, 국가 형제회 회장

국가형제회 평의원들이 여러분들께 부활 축복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TAU-USA 의 주제는 '쇄신'입니다. 쇄신 또는 갱신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쉬는 날? 잡지 구독이나 운전 면허증, 전문 자격증을 위해 하는 것들? 무언가를 쇄신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지치거나 고갈되어 버릴 수도 있고,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내거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갱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의 서약이 소멸하거나 만료되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노력이 미지근하거나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속해서 쇄신하며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이 재속프란치스코 회칙 서약을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쇄신에 관한 다음의 두 가지 영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 회칙의 제 7 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회원은 자기 성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받아,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자기 쇄신 과정에서 화해성사는 성부의 자비심의 특별한 표지이고 은총의 샘이다."

1978 년에 국제형제회 회장께서 새 재속프란치스코 회칙을 (벌써 거의 46 년이 지남)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 그 회칙안에 포함된 프란치스코 메세지와 어떻게 거룩한 복음에 따라 살아 가는 지 가르쳐주는 지침을 기쁘게 받아드리십시오. 우리가 희망하는 쇄신의 그 중추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영적 체험,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영감과 지침을 받았던 회개의 형제자매들의 영적 경험으로, 즉 그 처음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쇄신의 길”과 “쇄신의 중심”이라는 구절이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쇄신으로의 우리의 여정은 바로 매일 매일의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의 본래의 서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라핌적 아버지 성 프란치스코는 “지금까지 –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며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우리의 여정에서, 매일 매일 다시 시작하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이렇게 매일 매일 회개를 달성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매일 재속프란치스코 회칙의 한 조항씩을 묵상한 후에 서약 갱신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제가 서약하고 후에 재속프란치스코 회칙과 회헌에 관한 워크샵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워크샵은 오랜 기간 동안 재속프란치스코회 영적보조자 이시고, *Fully Mature in the Fullness of Christ*의 저자인 Benet Fonck, OFM 신부님께서 진행하셨는데, 그곳에서 몇몇 참가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회칙을 살 수 있을까요? 매일 할 일도 많아서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무엇인가요?”

Benet 신부님께서 세 가지 즉 기도, 형제회 그리고 선교를 꼭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기도 –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 형제회 – 한 명이나 그 이상의 회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메일이나 짧은 전화와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 선교 –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것

이 간단하면서 매우 깊은 메시지가 저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매일의 참된 여정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었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최소화해 주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의 회칙에 대한 우리의 서약이 만료되지 않고, 우리를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중추인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과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합니다.